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ACN 특별보고서

ACN 대표단의 나이지리아 방문기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아/프/리/카 공격당하는 나이지리아 교회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나이지리아 방문

레베카 씨의 이야기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는 행동이라며, 만약 당신이 이 아이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믿음의 기적,
박해 속에서 커져가는 신앙

in memory of

마이클 가제레 신부님

모두가 침묵하는 분쟁,
폴라니 유목민 민병대

사제가 되기 위한
길고 험난한 길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나이지리아 방문



보르노 주 주도인 마이두구리의 한 캠프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난민 가족

“ 보코하람(Boko Haram) 병사들이 저를 때렸는데, 매일 98번씩 매질을 당했습니다.
또 막내 아들 조나단을 산 채로 차드 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익사했지요.... ”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대표단이 지난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인 레베카 씨가 들려준 참혹한 증언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게 납치되었는데, 병사와의 잠자리를 끝까지 거부하자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습다. 우리는 테러단체에 억류되어서도 용감하게 싸운 레베카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표단은 불과 며칠 전에 보코하람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두 소녀도 만났습니다. 2014년, 치북에서 납치된 276명의 소녀들은 아직 절반 이상이 보코하람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아동과 여성들이 계속해서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레베카 씨는 탈출할 수 있었고, 현재 나이지리아 북부 마이두구리(Maiduguri) 교구의 한 본당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레베카 씨는 용기를 내어 ACN 대표단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 주었고, 보코하람에 의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다른 피해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이두구리 교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대표단이 나이지리아에 체류 중일 당시에도 도시 외곽에서 자살 폭탄이 터지면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코하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모두 2,600만 명입니다. 보르노(Borno) 주에서는 18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마이두구리에서 5,000명의 미망인과 15,000명의 고아가 생겨났으며, 200여 개의 성당과 공소가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단체는 보코하람뿐만이 아닙니다. 유목민인 풀라니(Fulani) 족도 그리스도인 마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풀라니 유목민 민병대’는 ‘다에시’(IS)와 ‘보코하람’의 뒤를 이어 가장 잔혹한 이슬람 무장단체 3위에 등극했습니다. 풀라니족이 벌이는 악행은 보코하람과는 그 양상이 다른데, 신학생 마이클 아브라크(Michael Abrak) 학사님은 풀라니 유목민 민병대가 파괴한 자신의 마을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ACN은 지난해 총 사업비의 약 27.5%를 아프리카 지역 교회를 돕는 데 썼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나이지리아에서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와 탄자니아, 심지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은 ACN 가족 여러분의 후원과 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톨릭교회는 ACN 대표단의 방문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환영하였는데, 마이두구리 교구장이신 올리버 다셰 도메(Oliver Dashe Doeme) 주교님은 ACN을 “마이두구리 교구의 지지대”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카두나(Kaduna) 대교구장 매튜 만 오소 응고소(Matthew Man-Oso Ndgoso) 대주교님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일치와 단결이 희망과 용기를 준다”며 “지구촌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돕겠다는 여러분의 약속에 우리도 영적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보내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레베카 씨의 이야기

‘보코하람의 노리개’로 전락했던 악몽 같은 시간 끝에, 레베카 씨는 2년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이두구리 대성당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임시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며, ACN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씨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ACN 대표단에게 자신의 겪은 시련을 고백했는데, 모국어인 ‘하우사’로 말하는 그녀를 기드온 오바소지(*Gideon Obasogie*) 신부님께서 통역해 주셨습니다.

2014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르노 주의 바가(*Baga*)를 공격했을 때 레베카 씨와 그녀의 가족은 피신하려 했지만,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남편은 갓 태어난 조나단을 안고 3살배기인 자카리아의 손을 잡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코하람이 빠르게 추격해 오자, **레베카 씨는 남편에게 혼자라도 도망가라며 설득했습니다. 테러범들이 여자와 아이는 납치하지만 남자들은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 먼저 탈출했으나, 그녀와 아이들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레베카 씨와 두 아들은 28일 동안 보코하람의 근거지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기드온 신부님은 “**고된 행군 때문에 도중에 유산을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수위가 높은 차드 강 마저도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레베카 씨는 보코하람 병사에게 팔려 강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보코하람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가 밤에 다가오려고 하면, 제 몸에 아들의 변을 발랐습니다. 병사들은 차마 제게 손은 못 댔지만, 대신 저를 끔찍하게 두들겨 뒀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하수의 수맥을 찾을 때까지 3주 동안 구덩이를 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98대의 맷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코하람 병사들은 세 돌이 막 지난 막내아들 조나단을 차드 강에 집어던졌습니다. 레베카 씨는 아들이 익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또한 그녀는 나흘 간 구덩이에 갇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구덩이에서 나올 무렵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한 병사가 그녀를 강간하였고 끝내 임신하게 됩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레베카 씨는 전통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워자(*Gwoza*)에서 납치당한 한 목사의 부인이 레베카 씨에게 아이를 뱀 채 자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보코하람의 아이를 둘이나 낳은 처지였습니다.

레베카 씨는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코하람 병사는 아들을 얻은 사실에 기뻐했지만, 또 다시 레베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레베카 씨는 보코하람 병사들이 기습 작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회를 노려 **2년 만에 탈출했고, 마이두구리를 향해 3주 넘게 걸고 또 걸었습니다.**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였으나, 레베카 씨와 두 아들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레베카 씨는 자카리아와 새로 태어난 아들, 크리스토퍼와 함께 이웃나라 니제르의 디파(*Diffa*)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 군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마이두구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뒷면에서 이어집니다.)



마이두구리교구장 올리버 다세 도에메 주교님

그런데 가까스로 고향에 도착해 보니, 레베카 씨의 남편은 부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선 결혼식을 취소했지만, 상황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레베카 씨가 보코하람 병사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씨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보코하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저를 참으로 두렵게 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지만, 크리스토퍼를 보면 역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드온 신부님은 “남편이 다행히 마음을 열어 부인 레베카와 두 아이들, 특히 크리스토퍼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브라힘’이라고 부른 아이에게 레베카 씨는 ‘크리스토퍼’라는 새 이름을 짓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는 행동’이라며, ‘만약 당신이 이 아이에게 사랑

을 보여주면,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레베카 씨의 가족들은 마이두구리 교구의 한 본당에서 500명의 다른 국내 난민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베카 씨와 그녀의 남편은 혼인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갖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카두나대교구 성리타성당



ACN 대표단이 마이두구리 난민 캠프를 방문하자 환영하는 가족들

믿음의 기적, 박해 속에서 커져가는 신앙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 덕분에 가톨릭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여러 본당을 방문하며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입은 전통 의상과 경쾌하고 비트 넘치는 음악, 특히 그 해맑은 미소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미사는 물론, 평일 미사나 십자가의 길 기

도를 바칠 때에도 성전은 신자들로 가득 찹니다.

ACN 대표단은 각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성전의 대부분이 몇 달 내지는 몇 년 전에 폭탄으로 무너지거나 불에 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에 함께 참여한 신자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친구,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형제자매들의 기쁨과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주교님들께서는 대표단에게 기존 성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사제 성소가 풍부해졌는데, 대표단이 방문한 신학교의 학장 신부님은 훌륭한 성소 지원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의 묘소를 찾아가는 길



평생 동안 섬기던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마이클 가제레 신부님

마이두구리의 사제들은 매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보코하람이나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테러나 폭탄 공격을 목격하고, 성전과 사제관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범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ACN 대표단이 교구장 올리버 다셰 도에메 주교님과 교구 사제들에게 마이클 가제레(Michael Gajere) 신부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 비친 슬픔과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은 생전에도 잘 알려진 분이었고, 한때 동료 사제로서 활발히 활동했으나 이제는 마이두구리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 덴마크의 한 신문사가 무함마드를 주제로 제작한 캐리커처를 실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폭탄을 든 테러리스트로 그려진 풍자화 때문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7,000km 남쪽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 바케니(John Bakeni) 신부님은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성 미카엘 성당과 성 리타 성당이 동시에 공격당해 성전은 물론, 50채가 넘는 집과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당시 마이클 신부님은 재빨리 피하지 못

한 바람에 사제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 파트리치오 본당 신부님들과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을 공격한 이들은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할 정도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신부님은 지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식수, 농산물이나 다른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테러범들과 마이클 신부님이 대면한 그날, 신부님께서는 제발 성전을 불태우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님을 칼로 살해한 후 시신을 타이어에 끼워 불을 붙였습니다. 교구 신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뺏조각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신부님은 평생을 바쳐 일하고 보살핀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으셨지만, 동료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화와 용서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 속에 있지도 않고, 복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다혈질적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마이클 신부님과 함께하시며, 또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순교자입니다. 교회는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관료주의가 있을 것이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러나 마이클 신부님처럼 순교한 형제자매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고, 다른 곳에서도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목숨을 내놓은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신부님께서 하늘나라의 다른 성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 신부님은 본당 신자들이 다행히 타 종교 신자들을 비롯하여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도에메 주교님의 도움으로, 본당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당을 찾습니다. **도에메 주교님과 기드온 신부님, 존 신부님께서는 무슬림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라고 젊은이들을 지도하십니다.** 훗날 이슬람 무장세력이 다시 침입해 와도, 무슬림 이웃들이 그들을 막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두구리의 용감한 사제들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종교에 관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ACN 대표단이 마이두구리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전통 복장을 한 무슬림 남성 두 명이 다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단이 도에메 주교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교님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폭력이 난무하는 긴장 상태에서도 사제들은 무슬림 공동체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미 그 씨앗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분쟁, 플라니 유목민 민병대

플라니 유목민 민병대로부터 성당과 집을 공격당한 카판찬 교구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에서 비극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테러단체는 보코하람 말고도 더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2006년 이후 폭력적으로 돌변한 세력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 분쟁의 역사는 그보다 앞선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도교가 빠르게 전파되자 권력을 쥔 무슬림 엘리트들이 흑어 자신의 기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의 분쟁은 종교만이 아니라, 토지나 돈, 권력, 심지어는 민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플라니족은 원래 유목민 출신으로, 자신이 가려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집을 불태우고 땅을 빼앗고 가축들을 몰수해 가며 반격하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집과 마을을 타겟으로 공격하는데, 최신 무기와 도주차량을 준비해 습격합니다. 애당초 유목민의 형편으로는 이런 고가의 무기와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카판찬(Kafachan) 교구장 조셉 바고비리(Joseph Bagobiri) 주교님께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관세청, 이민청과 내무부 책임자 중에는 플라니족 출신이 많은데, 그들은 최신

무기를 밀수입하고 플라니족에게 전달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힘없는 피해자들보다 침략자나 살인자들의 편을 더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라니족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가해자가 무슬림이면 죄를 저지르고 잡힌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국 마땅한 형량이 선고되는 대신 흐지부지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ACN의 사업 협력자들이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플라니 유목민 민병대로 인해 총 12,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대부분 무지한 상태입니다.

플라니 유목민 민병대가 저지른 잔행의 규모를 놓고 보면, 그들은 다에시(IS)와

보코하람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간주됩니다. 악명 높은 알 카에다가 4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ACN 대표단은 바고비리 주교님과의 만남을 황급히 마쳐야 했는데, 플라니족이 옆 동네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주교님께서는 부활 성야를 지내기 위해 성 토요일에 모인 사람들을 플라니족이 공격하여 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 오셨습니다.

바고비리 주교님은 공격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카파찬 교구의 평화를 빌어 달라고 말씀하시며 ACN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플라니 유목민 민병대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카판찬교구장 조셉 바고비리 주교님

사제가 되기 위한 길고 험난한 길



카두나대교구 착한 목자 신학교

ACN 대표단은 나이지리아 카두나대교구에서 ‘착한 목자 신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테러의 위협 속에서 사제가 되기까지 크나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아브라크 학사님은 대표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카두나 주 남부에서 온 젊은 신학생입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풀라니 유목민 민병대가 제 마을을 습격하여, 기단 와야(Gidan Waya) 본당을 공격하고 무자비한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풀라니족은 보통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희생자들 중에는 제가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마을들은 버려졌고, 기단 와야는 유명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풀라니 유목민 민병대로 인해 카두나 주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카판찬 교구에서는 2016년 가을부터 모두 9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이래로 71개의 마을이 공격당하여 2,712채의 집과 20개의 성당이 파괴되었습니다.

기단 와야에서 수백채의 집이 불에 타 재가 되어 버린 참상을 설명하며 마이클 학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 앞에 저의 믿음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는지 거듭 묻고는 했죠.”**

신학교에 들어온 지 2학기가 지날 무렵이

였습니다. 마이클 학사님은 군대에 입대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 신부님께서 **“아들아, 너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란다.”**라며 학사님의 군 입대를 말리셨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의 기도 덕분에, 마이클 학사님은 평화와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공격 때문에 부서진 삶과 희망의 조각을 줍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루 빨리 우리 마을을 구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ACN은 마이클 학사님이 공부하고 있는 착한 목자 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의 길을 걸으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새 성전 건립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다

ACN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나이지리아 가톨릭교회는
보코하람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레베카 씨와 같은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ACN의 활동으로, 이슬람 무장세력을 피
해 난민이 된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비롯
하여 의류, 식량, 의약품 등을 받게 되었
으며 마이두구리 교구는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목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는 미사 예
물이 생명줄만큼 긴급히 필요합니다.

ACN은 2014년 이래로 긴급 구호사업을
통해 테러단체를 피해 국경을 넘어 카
메룬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은 ACN의 지역 교
회 협력자들이 종교 근본주의라는 소용
돌이에 갇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이두구리 교구장 올리버 다세 도에메
주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마이두구리에서 고
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ACN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서는 저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여러
문제와 아픔을 알고 또 이해해 주며, 이
런 힘든 시간 속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
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5만 원
보코하람 피해자 긴급 구호

보코하람 때문에 고향을 잃은 나이
지리아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
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
이지리아 군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테러단체는 아직도 활동 중이며 마
을과 온 동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ACN은 지역 교회 협력자들과 손을
잡고 긴급 구호사업을 펼칩니다. 여
러분의 후원금은 식량과 의약품, 임
시 숙소 등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신학생 양성 지원 7만 원
나이지리아 신학생 월 생활비 지급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사제 성소
는 풍부한 편으로 현재 5천 명 이상
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크 학사님과 같은 젊은이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사제가 되는
길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지역 교회와 사람들을 섬
기려는 이 용감한 젊은이들을 양성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 지원 50만 원
성전 재건 및 새 성당 건축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고통받는
교회는 성전 재건이나 건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코하람이 파
괴한 성당과 부속건물은 200개에 달
하며, 사제관 19개와 교리실 15개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무너지고 훼손된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쓰이며, 나이지리아의 형제자매
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 혹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ACN의 수행 가능한 사목 활동에 사용됩니다.